

## '수질/대기오염방지 정책설명 및 신기술 발표회' 개최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제11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환경기술전(6월 13일부터 16일까지) 행사기간 중 6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센터 311호에서 '수질/대기오염방지 정책설명 및 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와 산업계에서 나와 관련정책 및 신기술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경정책을 청취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날 강의 내용은 환경부 산업폐수과 이진용 서기관이 '환경부의 수질TMS 구축계획', (주)상원이티씨 정유찬 이사가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기술(SBR)', (주)동일그린시스 허목 부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수질 TMS 제안', (주)바이오엔텍 성찬호 차장이 '밀폐형 바이오비드(Bio Bead) 공정을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 기술', (주)드림바이오스 안우정 박사가 'TMS에서의 자동채수기(Auto Sampler) 적용방안',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 강복규 사무관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각각 설명했다.

또 환경부 대기관리과 문제원 사무관이 '대기 관리의 성과와 과제(악취방지법 해설 중심)', (주)카이스코퍼레이션 노병대 연구소장이 '광화학식 악취 및 VOC 처리', (주)해림엔지니어링 김유득 대표이사가 '질소산화물 처리 기술(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S.C.R)', (주)플드홈/(주)PCH 에너지 박수환 대표이사가 '대체연료 중 유화연료유', 큐바이오텍(주) 황열순 이사가 '고농도 유기성 폐수처리기술 QBR(Quick Bio Reactor)', 국립환경과학원 송시훈 팀장이 '개발사업과 수질총량관리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이날 환경부 산업폐수과 이진용 서기관은 "수질 TMS 구축과 관련한 업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할 것

이며, 오는 8월 말쯤이면 관제센터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배출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서기관은 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하·폐수종말처리장과 1~3종 폐수배출사업장 및 200m<sup>3</sup>/d 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진 공동방지시설이며, 측정 항목은 pH, BOD, COD, SS, T-N, T-P로 6개 항목"이라고 밝히고 "이 중 원폐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항목의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하고, BOD와 COD는 오염도가 높은 항목의 측정기기 1개만 부착하면 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7면)

또한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 강복규 사무관은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과학적 바탕 위에서 수질을 관리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등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반드시 성공하는 정책을 이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